



문원5집 발간에 부쳐

학교장/김 영 석

유난스럽게 무더웠고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가는가 했더니, 어느새 앙상한 나뭇가지가 추운 몸짓을 하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때마침 문원 5집이 발간된다고 반가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아울러 학생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본교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문성여상과 합동으로 열었던 축제 행사를 ‘문원축전’이란 제호아래 독자적인 행사로 치름으로써 문일인의 역량을 내외에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코트를 후배에게 물려주자는 운동에 많은 선배들이 호응하여 후배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 준 것에 대해 대견스러움과 고마움을 금할 수 없으며 사회 현실의 각박함에 비추어 볼 때 여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의식있는 학생’이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이른바 무의식 중에 행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아의식, 그리고 ‘나’이전에 우리학급, 우리학교의 일원이라는 공동체의식(우리의식), 나아가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민족의식 등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의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양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한 화제인 것 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작은 일들조차 무의식중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를 갠다든지, 버스를 타면 나혼자가 아니므로 조용히 한다든지, 복도를 걸어가다가 휴지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줍는다든지, 자기 책상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것 등의 모든 일이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임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작은 의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항상 의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양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고마와할 줄 아는 학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탓, 못 되면 조상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너무도 쉽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학생들이 많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평소에라도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특히 입시를 맞는 수험생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그동안 자신을 가르치시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하겠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력있는 문인, 조화로운 여성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활기찬 문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문원 5집의 발간을 위해 애쓰신 지도교사와 편집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文苑